

청년의 힘... 폐교, 감성충만 문화공간이 되다

신안 청년마을 '주섬주섬', 3년간 안좌중 팔금분교 리모델링 동물원·미술관·책방 갖춰...전남도 '청년마을 만들기' 첫 결실

청년들이 버려진 섬의 폐교를 활용해 동물원과 미술관, 책방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15일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신안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의 '주섬주섬 청년마을'이 박우량 신안군수,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군의원, 청년,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신안 청년마을 '주섬주섬'은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됐다. 3년간 최대 6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3년간 전국 12개소에 총 60억원을 들여 청년이 주도적으로 유류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지역살이 경험을 나누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섬주섬 청년마을을 기획한 스텝스는 폐교로 방치됐던 안좌중 팔금분교를 우실동물원과 청년작가 작품으로 꾸민 미술관, 책방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시켰다. 동물숲에는 멸종위기 도마뱀 30종과 아메리카 열대거북이, 앵무새 20여종이 있다.

이들은 특히 안좌도 빈집을 활용,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외지 청년을 끌어모으고 있다. 마을 갤러리를 설치해 사진전을 여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도 열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전남도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청년마을이 지속 성장하도록 2022년에도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청년이 전남에서 생활하도록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새롭게 추진, 확대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 유출로 활력이 떨어진 지역에 청년 주도하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과 상생하는 청년마을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전남형 청년마을'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신안 안좌중학교 팔금분교의 '주섬주섬 청년마을'이 지난 12일 개소했다. 폐교로 방치됐던 안좌중학교 팔금분교가 우실동물원과 청년작가 작품으로 꾸민 미술관, 책방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시립의료원 설립 등 5개 사업 이용섭 시장, 국회에 예산 요청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내년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결위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종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방문해 국가 고차기장 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 시립 의료원 설립,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5개 사업의 국회 반영을 건의했다.

광주-전남 예결 소위원회 신정훈 의원에게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빛고를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등 10개 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인 정태호 의원, 송갑석·이형석·조오승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주요 사업 국회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56건, 1827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되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 지역 국회의원, 중앙 부처 등을 설득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데이터직 임용 채용

광주시는 "2022년 지방직 임용 시험에서 처음으로 데이터직을 신규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데이터직은 행정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수요가 커지자 지난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기존에는 행정, 전산 등 직렬이 행정 데이터를 관리해왔다. 시험 과목은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등이다.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데이터는 광주가 역량을 두어 추진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이자,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빅데이터 전문가를 광주가 선도적으로 육성해 행정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수능 지원대책 추진

광주시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지역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656명 증가한 1만7034명이다. 광주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입시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중심으로 자치구, 교육청과 함께 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무증상자는 38개 시험장, 자가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2개교로 분리한다.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관공서와 출자 출연기관 등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시내버스·가중점 14곳, 시험장 인근 지하철역사 7곳에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공무원 등 74명을 배치해 배차 시간 준수, 대기 시간 경적 금지 등을 안내한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교통약자 전용 택시 183대가 무료로 수송을 지원하며 광주지방경찰청은 순찰차 73대와 오토바이 6대를 동원할 예정이다. 119 종합상황실, 소방서에 전화로 예약하면 시험장에서 자택까지 왕복으로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일상 회복 지원금은 소상공인 행복의 씨앗"

광주상인연합회, 조속 집행 촉구

광주 상인연합회는 15일 "일상 회복 지원금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행복의 씨앗"이라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상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지방 정부의 매칭 방식으로 재난 지원금이 지원돼 지역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됐음을 주목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지원하려는 일상 회복 지원금은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들이 회원으로 둔 단체다.

광주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1338억원을 편성해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부에선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지만, 광주상의, 소상공인연합회 등 재계와 자영업자들은 지급 계획을 환영하고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신청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연이율 1% 저리 혜택

전남도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신청을 접수한다.

2022년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연이율 1% 저금리로 용자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이다. 용자 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학사농업인은 2억원, 가

공·유통·수출 사업자는 10억원이다. 용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종묘·종패·종자 구입,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저온저장고 신축 등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균분 상환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부터 최대 10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다양하게 지원한다.

용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용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이 시군별로 달라서 거주지 시군에 사전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 심사와 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용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상자는 2022년 1월부터 지역농협과 수협을 통해 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연 1% 장기저리 용자 지원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1990년부터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해 현재 2143억원을 조성했으며, 1만1750건 6332억원을 용자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함평 빛그린산단 중심 산업도시 도약"

김영록 지사, 도민과 대화...연관기업 유치·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함평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함평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연관기업 유치, 근로자 주거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동력 마련 등 산업도시로의 도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빛그린산단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 외에도 주요 산업 선도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며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 삼거동·덕림동과 함평 월야면 일대 407만㎡ 부지에 조성 중이다. 지난 2009년 광주의 1단계 구역(264만㎡) 조성 시작돼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함평군의 2단계 구

역(142만㎡)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함평군의 함평천지 4계절관광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엑스포공원, 함평천 화양근린공원 등 기존 자원 활용을 통해 연중 방문이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이 목표"라며 "체육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이 있으므로 도비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을 수호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관광지 조성 사업은 함평천지길에 사색·사랑·신화·기억·장미 정원 등 5가지 테마로 6km에 명품길을 조성하고 있다. 또 체험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탐방승강기, 스카이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d@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상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